제 1회 온양문화제

신정호 제방을 스텐드로하여 펼쳐진 이충무공 탄신기념 문학축제
행사 장면...

제 1회 온양문화제 1962-04-28

- 신정호 제방을 스탠드로하여
펼쳐진 이충무공 탄신 기념
문화축제 행사 장면.

제 2회 온양문화제

실내행사인 경축음악 발표회
(장소: 구시네마극장)

제 2회 온양문화제 1963-04-28

- 실내행사인 경축 음악 발표회
(장소: 지금은 없어진 구 시케마극장)

제 3회 온양문화제

당시 온양만이 보유하고 있던
경음악단
(망월대 캬바레악단)의 공연장면.

제 3회 온양문화제 1964-04-28

- 당시 온양만이 보유하고 있던
  경음악단
(망월대 캬바레악단)의 공연장면.

제 4회 온양문화제

온양중학교 가설무대에서 공연된
무용

제 4회 온양문화제 1965-04-28

- 온양중학교 가설무대에서 공연된
  무용

제 5회 온양문화제

전야제 일환으로 이루어진
축등행렬.

제 5회 온양문화제 1966-04-28

- 전야제 일환으로 이루어진 축등 행렬.

제 6회 온양문화제

제 6회 온양문화제 1967-04-28

- 빗속을 헤치며 이충무공 탄신을 축하하는 제등행렬.

제 7회 온양문화제

제 7회 온양문화제 1968-04-28

- 어설프지만 처음 등장한 가장행렬

제 8회 온양문화제

제 8회 온양문화제 1969-04-28

- 4.28만 되면 비는 왜그리도 오는지!
  빗속에서의 축제장면.

제 9회 온양문화제

제 9회 온양문화제 1970-04-28

- 비록 흑백 프로일망정 KBS가 특별프로로 지원해준 TV공개방송

제 10회 온양문화제

제 10회 온양문화제 1971-04-28

- 이충무공 탄신기념 특별 TV프로그램

제 11회 온양문화제

제 11회 온양문화제 1972-04-28

- 발딛을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룬 연예인 초청 위안공연.

제 12회 온양문화제

제 12회 온양문화제 1973-04-28

-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자리를 잡고 가장행렬 등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.

제 13회 온양문화제

제 13회 온양문화제 1974-04-28

- 빗속을 무릅쓰고 무대에 차일을 치고 함께 어울어지는 KBS라디오 공개쇼.

제 14회 온양문화제

제 14회 온양문화제 1975-04-28

- 해마다 갊진 성원을 배풀어 주는 KBS 대표에게 고마운 뜻이 담긴 꽃다발 인사치예 장면.

제 15회 온양문화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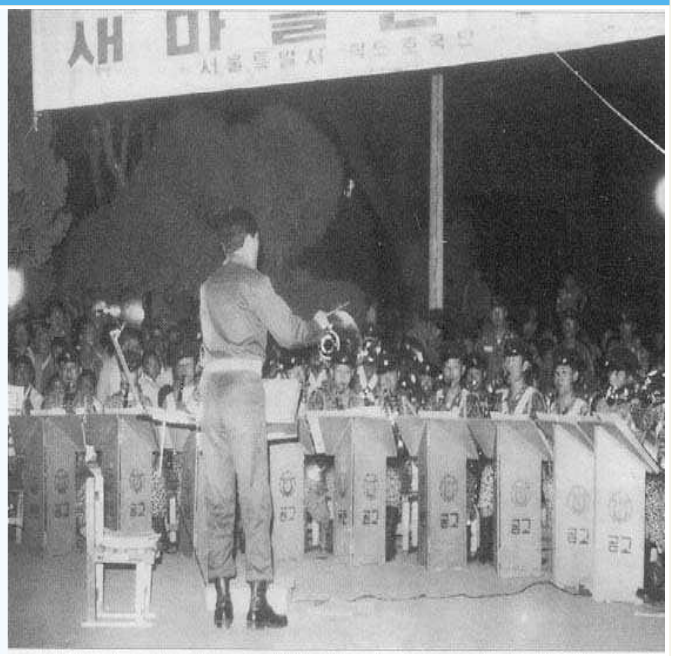
제 15회 온양문화제 1976-04-28

- 고연으로 달군 마음, 긴장을 풀고 출연진이 한자리에...
(지금 쯤 두 서너 아이의 어머니가 되셨겠지..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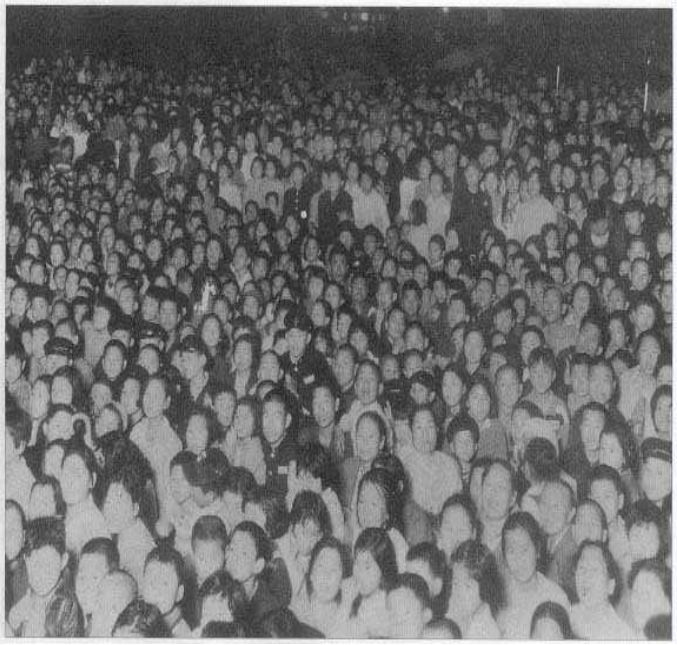
제 16회 온양문화제

제 16회 온양문화제 1977-04-28

- 나도 한몫, 서울시 학도 호국단 대표들이 역전 광장을 이용 연주회를 한다.



제 17회 온양문화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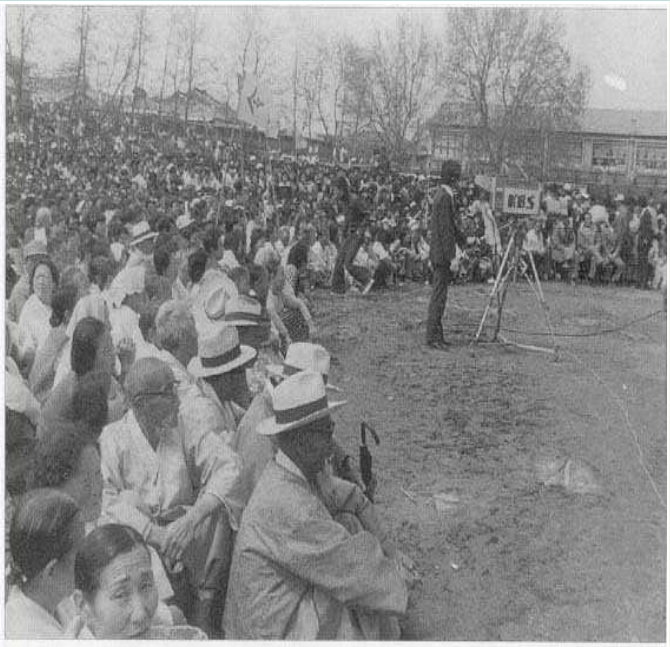
제 17회 온양문화제 1978-04-28

- 음악, 무용 신나기만하는 행사에 넋을 잃을 밤에 모인 관중들...

제 18회 온양문화제

제 18회 온양문화제 1979-04-28

- 내고장 만세, 이중무공 탄신 경축 프로그램 녹화현장.



제 19회 온양문화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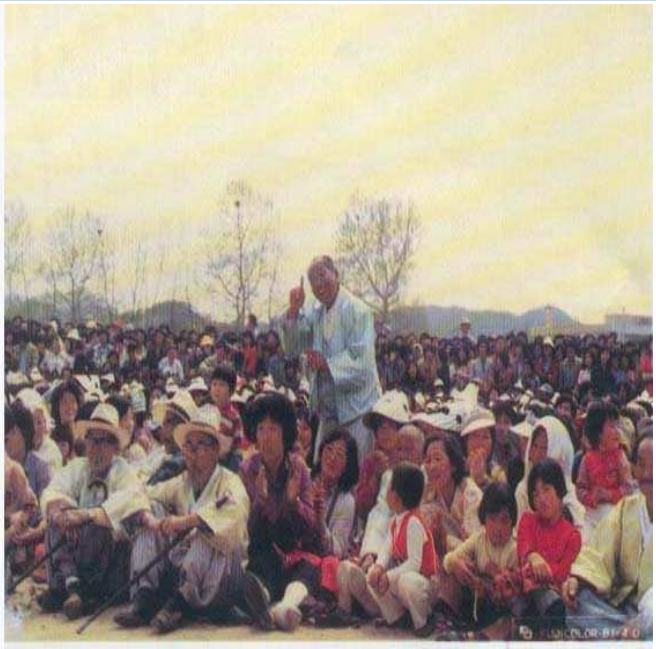
제 19회 온양문화제 1980-04-28

- 이름 높은 청백리 맹정승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.

제 20회 온양문화제

제 20회 온양문화제 1981-04-28

- 앞줄은 모두가 타지방 사람, 온양 사람은 자리를 뺏겨 뒷전으로 밀렸지만 무두가 신명나는 한마당.



제 21회 온양문화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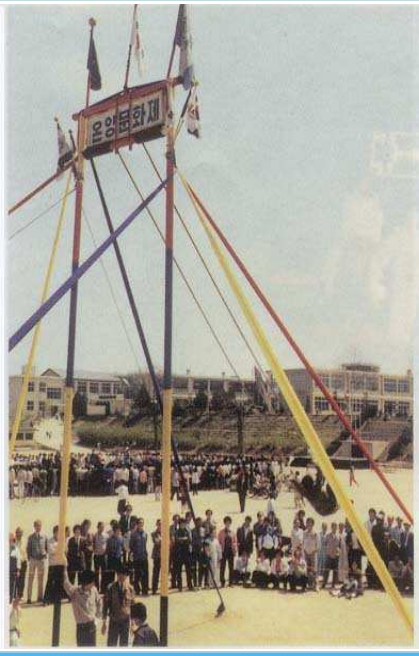
제 21회 온양문화제 1982-04-28

- 자동차 소리 요란해도 문제는 없다.
  멋진실력, 우리가 최고...!

제 22회 온양문화제

제 22회 온양문화제 1983-04-28

- 높게, 멋지게, 힘차게, 하늘이 높다한들
  못오를까!!



제 23회 온양문화제

제 23회 온양문화제 1984-04-28

- 짧은 연습 두려울 소냐, 정성이면 그만이지...

제 24회 온양문화제

제 24회 온양문화제 1985-04-28

- 흥겨운 우리가락, 우리는 한마음 한뜻.

제 25회 온양문화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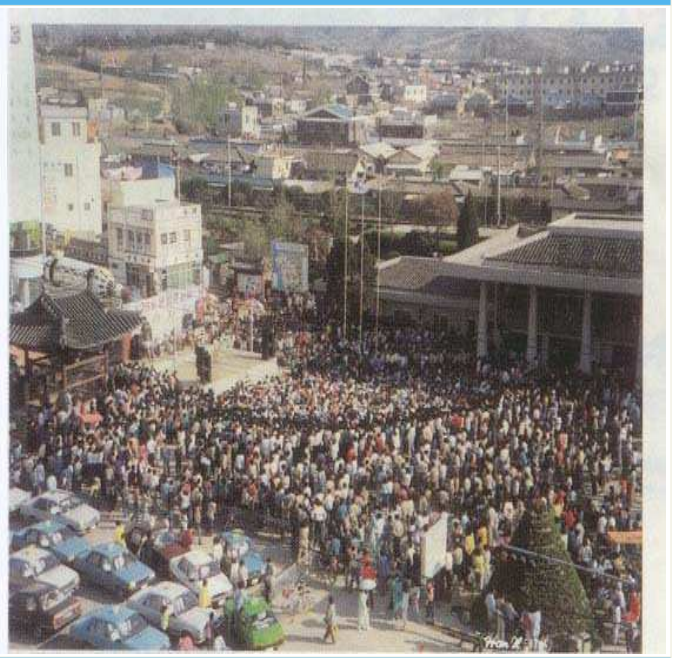
제 25회 온양문화제 1986-04-28

- 동네서는 잘 되더니 낯을 가리나 휘청되네.. 어어어...

제 26회 온양문화제

제 26회 온양문화제 1987-04-28

- 답답하구나, 넓은 공간, 멋진 장소 언제나 마련될지...



제 27회 온양문화제

제 27회 온양문화제 1988-04-28

- 무슨 소원 빌길래, 그토록 열심인가!

제 28회 온양문화제

제 28회 온양문화제 1989-04-28

- 어인정 발원제로 문화제 막을 열고 불신 담은 관등선이 물위에 떴네.

제 29회 온양문화제

제 29회 온양문화제 1990-04-28

- 기쁘다! 이충무공 탄신,
  충무정신 갈고 닦아 이어받자.

제 30회 온양문화제

제 30회 온양문화제 1991-04-28

- 황소걸음 30년, 알찬내용 높은수준
  자만말고 챙벼보자...

제 31회 온양문화제

제 31회 온양문화제 1992-04-28

- 온양/아산 하나되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한대 뭉쳤다.

제 32회 온양문화제

제 32회 온양문화제 1993-04-28

- 복원된 어의정에서 서막식하고, 아산군청 회의실에서 아산 무사 선발하고...

제 33회 온양문화제

제 33회 온양문화제 1994-04-28

- 새 행사장 곡교천 고수부지로 모인 온양/아산 시군민.

제 34회 온양문화제

제 34회 온양문화제 1995-04-28

- 집없는 33년 겨우찾은 시민로, 이곳이 영원한 우리집은 될 수 있을런지...

제 35회 온양문화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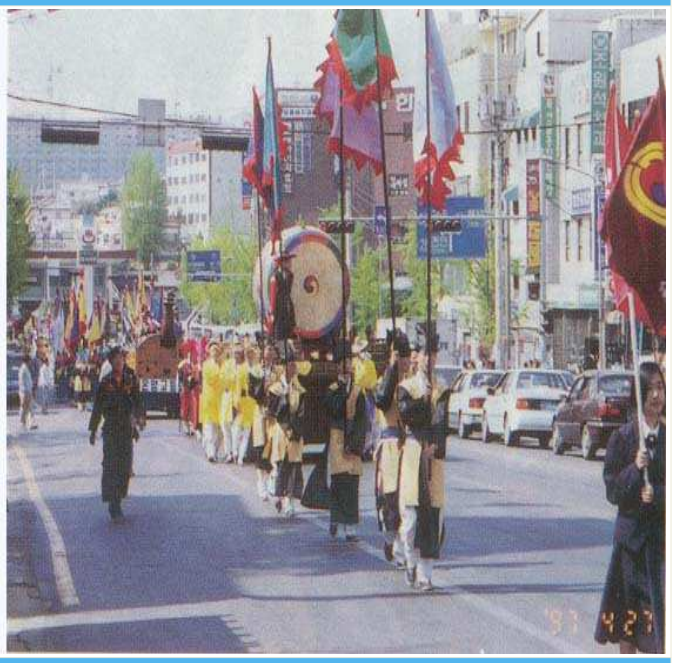
제 35회 온양문화제 1996-04-28

- 고장발전을 위한 힘이다.
  땡겨라!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...

제 36회 온양문화제

제 36회 온양문화제 1997-04-28

- 이 길을 역사가 있는 길, 꿈과 희망
  모아 오늘을 빛내고 내일을 열자.



제 37회 온양문화제

제 37회 온양문화제 1998-04-28

- 제37회 온양문화제 개막식에서 여학교 합창단원들이 새롭게 펼쳐질 문화제의 성전을 축하하고 있다.

제 37회 온양문화제

제 37회 온양문화제 1998-04-28

- 제37회 온양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온 온행제왕 추모제 모습.

- 옛 온궁터에 자리하고 있는 영괘대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다.

제 37회 온양문화제

제 37회 온양문화제 1998-04-28

- 제37회 온양문화제의 거리축제 국군 취타대의 퍼레이드 모습.

제 38회 온양문화제

제 38회 온양문화제 1999-04-28

- 국악의 향연프로그램에 출연한 초등학교 어린이들...

제 38회 온양문화제

제 38회 온양문화제 1999-04-28

- 문화제 행사 때마다 오래도록 이어온 온천제에서 천혜의 온천수에 대한 감사의 뜻과 더욱 많이 용출되어 주기를 기원하는 온천제의 모습.

제 38회 온양문화제

제 38회 온양문화제 1999-04-28

- 제이충무공의 충무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마상무예모습.